



● **프랑스에서도 대장금(?) 열풍, 요리책 출간 활기**  
우연의 일치일까? 국내에서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요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요리책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4년 봄, 687종의 요리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어 프랑스 출판계에서 중요한 도서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출판전문잡지 <리브르 에브도Livres Hebdo>는 최근호를 통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요리책을 출판하지 않았던 25개의 출판사 목록을 발표했다. 이 출판사들 중에는 갈리마르, 플라마리옹, 르 쇠이, 플롱 같은 전통적인 문학 출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진이 잘 편집된 저렴한 가격의 요리책들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에는 세련된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요리책과 요리예술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신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으로는 《기름의 역사*Histoire d'huile*》, 《위대한 요리사와 맥주*Les grands chefs et la bire*》, 그리고 《화가와 맥주*Les peintres et la bire*》 등이 있다.

유명 요리사들의 조리 방법을 소개한 책들은 조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재료가 많이 드는 이유로 독자들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대신 푸드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요리서들이 인기가 높다. 건강요리책 역시 유행하고 있으며 출판사들은 《나의 해초 요리*Ma cuisine aux algues*》, 《나의 사랑 호박*Courgettes, je vous aime*》, 《유기농 디저트*Bio-Desserts*》 등으로 그런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 **독일의 다국적 기업 베텔스만 중국 시장 확장**  
베텔스만이 중국 도서시장을 장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클럽 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 전국 체인 도서점인 21st Century Book Chain Co.의 주

식을 40퍼센트 이상 사들인 것. 이 회사는 베이징, 난징, 쑤천, 시아먼과 같은 중국 10개 주요 도시에 18개의 서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조인트 벤처도 가능한 상황이라 두 회사의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두 회사는 이미 2002년 12월에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베텔스만 북클럽 6곳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 체인 서점들은 도서, 테이프, 비디오 등을 취급하고 있다. 양측 모두 거래에 관련된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에 발표된 소식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1st Century Book Chain Co.의 사장 루오 루이런 씨는 “21st Century Book Chain Co.사의 18개 서점 중 6~7개는 새로운 조인트 벤처에 참가할 것이고 나머지 서점들은 폐업하거나 매각 처분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의 일부를 밝혔다.

베텔스만은 2000년 12월 중국에 북클럽을 개시하였고 현재 16만 개 이상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베텔스만 북클럽의 회원은 150만 명에 달한다. 베텔스만은 2006년에는 중국 회원이 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독일 도서시장 성장률, 2007년까지 연 1퍼센트 예측**  
독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전망 2003~2007은 “출판계는 성숙한 시장이어서 매우 낮은 성장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독일 출판시장 역시 연구 결과를 참조해,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0.2퍼센트 성장을 예측했다.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2007년까지 연평균 1.0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매체들은 훨씬 높은 성장이 예측되어, 인터넷 접속률과 광고는 연 10.4퍼센트, 잡지는 연 1퍼센트 성

장할 것으로, 음반은 인터넷 공유파일의 영향으로 연 3.8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존 쿣시 인상적인 노벨상 기념강연 펼쳐

2003년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회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쿣시가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 ‘그와 그의 사람 He and his man’에서 그는 배가 난파된 이후로 고독과 적막에 적응하게 되고 “세상에는 너무도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브리스톨에 사는 노인 로빈슨 크루소를 디포 원작의 힘넘치는 인물 크루소와 비교했다. 쿣시의 연설에서는 크루소가 디포를 소설의 인물로 설정하여 글을 쓰는 형식을 갖추었다.

한편 존 쿣시는 “나는 어릴 적 책을 매우 많이 읽었다”라며 자신이 독서광임을 밝혔다.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활동은 그것이다. 요즘에는 모든 가정에 TV가 있기 때문에 독서가 소홀해지고 있다”라며 작금의 독서풍토에 대해 가볍게 꼬집기도 했다. 쿣시는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 상금으로 1천만 크로나(15억6천만 원)를 받았다.

#### 워싱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이라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군에 대항할 때만 그들은 협력한다. 그 외국 군대는 국가 재건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군대의 장군은 미국의 폴 브레머가 아니라 영국의 에일머 헬데인 장군이다. 시대적 배경은 1920년도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은 바로 1992년에 출판된 헬데인의 소설 《1920년 메소

포타미아의 봉기 *Insurrection in Mesopotamia 1920*》다. 미국인들의 머리 속에서 오랜 동안 잊혀진 작품. 그러나 요즘 워싱턴에서 그 책은 필독서로 떠올랐다. 미국 국방성은 구할 수 있는 전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의 가격이 250달러에까지 오르고 있다. 과연 왜 그럴까?

헬데인의 소설에서 이라크(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 정부는 헬데인이 어떻게 그런 소설을 썼는지 알고 싶어 한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에일머 경은 “나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군사적인 것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밝히는데,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왜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듯싶다.

####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도서 주문

독일 모데르네 차이트 출판사의 《클래식 모데른》 시리즈 도서들을 핸드폰 문자 서비스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문자가 도서명과 자신의 주소를 입력해 전달하면 주문한 도서를 24시간 내에 별도의 배송료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클래식 모데른》의 작가이자 모데르네 차이트 출판사 언론담당 요헨 데어쉬는 “전통적인 유통경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실험해 보고 싶었다”며 새로운 주문방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게 된 동기는 대형도서 도매업체에 접수된 소규모 출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 《클래식 모데른》 시리즈는 고전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현대적인 언어에 맞게 새롭게 번역하였다. 가격은 항상 2.90유로(4,060원). 지금까지 쉴러, 괴테, 셰익스피어, 레싱 등의 작품이 출간되었다. ☞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과장